

코로나19·수막구균 백신 개발자 4명 ‘박만훈상’ 수상

(백신업계 노벨상)

SK바이오사이언스 발표

GSK 라푸올리·피자 박사
어린이 방역에 새로운 지평 열어

앤드류 폴라드·사라 길버트 교수
안전한 일상 회복에 크게 기여해



수막구균 B 백신을 세계 최초로 공동 개발한 GSK의 마리아그라지아 피자 박사(왼쪽)과 리노 라푸올리 박사가 2023년 박만훈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백신업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박만훈상’의 2023년 수상자에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교수진이 선정됐다.

7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따르면 올해로 2회를 맞은 박만훈상 수상자에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리노 라푸올리 박사와 마리아그라지아 피자 박사가 공동 수상자로 ▲옥스포드대학 앤드류 폴라드 교수와 사라 길버트 교수가 공동 수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GSK의 리노 라푸올리 박사와 마리아그라지아 피자 박사는 소아·청소년에 드물게 발생하지만 치명률이 높은 수막구균 B 백신을 세계 최초로 공동 개발하며 전 세계 어린이 방역에 새로

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 받았다.

옥스포드대의 앤드류 폴라드 교수와 사라 길버트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대응에 널리 활용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전 세계인의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첫 단계에 크게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앤드류 폴라드 교수는 옥스포드대학 소아과의 백신 그룹을 이끄는 책임자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을 이끈 주역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동 개발자이자 옥스포드대 백신학 교수인 사

라길버트 교수는 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수준의 백신 생산시설로의 백신 생산 기술 이전 등을 연구하며 신속한 신규 백신 개발에 기여했다.

이번 수상자는 제품 김 국제백신연구소(IVI) 사무총장, 김훈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등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백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의미있는 결과를 낸 개인 및 단체를 심사해 선정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후원하고 IVI가 주최하는 박만훈상은 국내 세포배양 백신의 선구자인 고(故) 박만훈 SK바이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옥스포드대학 앤드류 폴라드 교수(왼쪽)와 사라 길버트 교수가 2023년 박만훈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이언스 부회장의 업적을 기리고, 백신 업계에서 의미있는 공적을 세운 연구자 및 단체를 시상코자 2021년 신설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박만훈상을 백신 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상으로 정례화하고, 전 세계 백신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매년 2억원의 상금을 출연한다. 시상식은 고(故)박 부회장의 타계 2주기인 다음달 25일 진행된다.

IVI 제품 김 사무총장은 “제2회 박만훈상 수상자로 선정된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SK바이오사이언스와 전 세계 백신 분야 발

전에 기여한 분들에게 감사를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김훈 대표는 “백신을 개발하는 일은 긴 시간과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인류 보건 증진이라는 하나의 뜻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 과제”라며 “글로벌 보건 산업 증진에 크게 기여하신 고(故)박만훈 부회장의 정신을 계승해 앞으로도 국제백신연구소와 함께 백신의 개발 및 균등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lee@metroseoul.co.kr

KT&G, ‘레종’ 11종 전 제품 패밀리룩 통일

브랜드 패키지 디자인 리뉴얼 제품명의 ‘R’ 활용한 심볼 이미지

KT&G가 ‘레종(Raison)’ 브랜드의 패키지 디자인을 전면 교체했다. 이번 리뉴얼은 레종 제품의 디자인을 일관되게 통합해 브랜드 통일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며, 패키지 외 각 제품의 특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KT&G는 지난해 ‘레종’ 브랜드의 론칭 2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기 위해 현대적 감성에 맞게 브랜드 리뉴얼에 돌입, 올해부터 새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을 편의점 등 전국 유통채널 및 면세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선보이고 있



KT&G가 ‘레종(Raison)’ 브랜드의 론칭 20주년을 맞아 현대적 감성에 맞게 패키지 디자인을 전면 교체했다. /KT&G

다. 2002년 ‘레종’이 출시된 후 총 일곱 번의 리뉴얼을 거친 후 이번이 여덟 번

째다.

지난 1월 출시한 신제품 ‘레종 리저브’와 이번 리뉴얼을 통해 레종 브랜드 11종 전 제품에는 ‘패밀리룩’ 디자인이 적용됐다. 제품 패키지에 ‘Raison’ 제품명의 ‘R’을 활용한 심볼 이미지로 차별적이면서 간결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전달하고, 브랜드 로고와 제품명 등을 각 제품에 통일성 있게 배치했다.

또, 오리지널·프레소·휘바·프렌치 등 각 제품군에 맞게 고유의 패턴과 컬러를 반영해 종전보다 각각의 특성을 명확히 드러나도록 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보령컨슈머헬스케어 “하루 한 알로 눈 건강 챙겨요”

루테인지아잔틴 아스타잔틴 플러스

보령 자회사인 헬스케어전문기업 보령 컨슈머헬스케어가 눈의 노화와 피로 개선에 필수적인 성분을 담은 ‘보령 루테인지아잔틴 아스타잔틴 플러스’를 출시했다.

‘보령 루테인지아잔틴 아스타잔틴 플러스’는 하루 한 캡슐만으로도 눈 건강과 눈의 피로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구 관련 건강기능 성분인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과 함께 세포 건강

에 도움을 주는 아연과 셀레늄을 하나의 제품으로 결합한 건강기능식품이다.

루테인지아잔틴은 노화로 인해 줄어들 수 있는 눈의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빛을 가장 선명하고 명확하게 받아들이는 황반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분포하고 있으며, 해당 성분은 체내 합성이 불가능해 외부로부터 공급이 필수적이다. 본 제품은 루테인지아잔틴의 1일 권장 섭취량인 20mg을 포함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광동제약 비타민C 가득 당류 0 ‘비타500 제로’

광동제약은 건강한 비타민C를 가득 채운 ‘비타500 제로(ZERO)’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비타500 제로’는 당류와 칼로리 함량을 0(ZERO)으로 설계한 제품이다. 기존 ‘비타500’에 함유된 비타민C(500mg)와 상큼한 매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건강함을 배가한 것이 특징이다. ‘비타민C를 가득 채운 제로’라는 콘셉트로 소비자에게 어필한다.

제품 패키지는 활력을 상징하는 오렌지 빛 바탕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계승하고 반짝이는 실버 색상의 ‘ZERO’ 문구를 삽입해 세련된 이미지를 부각했다. 특히 10입 패키지에는 광동제약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엠블럼이 삽입됐다.

/이세경 기자

숨37° ‘마이크로액티브’ 2종 라인업

리페어 세럼, 소프트 핏 크림 출시

LG생활건강의 자연·발효 뷰티 브랜드 ‘숨37°’이 피부를 위한 오랜 연구와 숨쉬는 자연을 위한 브랜드 철학을 담은 신규 라인 ‘마이크로액티브’의 신제품 ‘마이크로액티브 리페어 세럼’과 ‘마이크로액티브 소프트 핏 크림’ 2종을 출시했다.

숨37°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마이크로액티브’ 라인은 다양한 외부 자극으로 인해 손상되기 쉬운 피부에 오랜 기다림으로 응집한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았다. 10년 발효를 통해 얻은 핵심 성분 ‘트루-액티브’가 40가지 피부 영양 성분을 섬세하게 채워주고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로 찾은 민감 케어 특효성분 ‘바이오렐라이드190’가 미세한 자극으로 매일 더 민감해지는 피부의 작은 부분까지 살펴 더 맑고 빛나게 숨쉬는 피

부를 완성해준다.

마이크로액티브 라인의 대표 신제품 ‘마이크로액티브 리페어 세럼’은 미세한 자극으로 민감해진 피부에 깊은 보습과 맑은 생기를 선사한다. 피부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수분감을 부여하는 피부 10층 보습 효과와 손상된 피부 장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피부 장벽 리페어 효과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탄탄하게 보호해 준다. 특히 피부 결을 부드럽게 정돈해 민감한 피부에도 맑고 건강한 10중 자연광을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함께 출시된 ‘마이크로액티브 소프트 핏 크림’은 촉촉하게 밀착되는 포물러가 피부를 편안하게 감싸주며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준다. 자극으로 인한 트러블을 개선하고 예민해진 피부를 보호하며, 보이지 않는 피부 탄력까지 채워주는 10중 미세 탄력 충전 효과로



피부에 풍부한 탄력감을 부여한다. 또한 끈적임 없이 부드럽고 촉촉하게 스며드는 텍스처가 편안한 사용감을 전해 사계절 내내 사용 가능하다.

/이세경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포인트엔 거품 쏙쏙 ‘딥 클린 힙 클렌징 폼’ 선택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의 클린 케어 브랜드 ‘포인트엔’(point&)에서 쏙쏙한 거품으로 모공 속 노폐물을 말끔히 세정해주는 ‘딥 클린 힙 클렌징 폼’을 새롭게 선보였다.

포인트엔 딥 클린 힙 클렌징 폼은 조밀하고 풍성한 거품으로 미세먼지는 물론

블랙헤드부터 모공 속 노폐물까지 99.3% 말끔하게 세정해주는 클렌징 폼이다. 특히 코코넛에서 추출한 자연 유래 아미노산계 계면활성제를 함유한 풍성한 거품이 부드러운 클렌징을 도와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세경 기자